

## 성범죄의 성경적 고찰

이 태 언\*

### <목 차>

- I. 서 론
- II. 현행법상 성범죄의 성격과 내용
  - 1. 성범죄의 의의
  - 2. 연혁 및 입법례
  - 3. 성범죄의 현황
- III. 성경에 있어 성범죄의 성격 및 대책
  - 1. 간음죄의 성경적 의의
  - 2. 간음죄의 성립조건
  - 3. 간음의 전제로서의 결혼제도
  - 4. 간음죄의 성경적 견해
  - 5. 간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대책)
- IV. 간통에 대한 규제
  - 1. 유부녀와의 간통
  - 2. 약혼한 여자와의 간통
  - 3.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의 간통
  - 4. 기타 간음죄에 대한 규제
- V. 결 론

---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 I. 서 론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인간이 생활하는 형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들이 문명이나 문화를 특징짓게 되는데 이 같은 문명의 차이를 규정짓는 요소는 크게 인종과 기후와 자연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파악된 인종은 2만 종류나 된다고 하나 크게 모(母)집단으로 나눌 때 100여개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나 사실상의 일반적인 대 분류는 황인, 백인, 흑인종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들 인종들에 따라 독특한 문화들이 이루어져 왔다. 기후적인 면에 있어서도 온화하여 활동이 원활한 그러면서도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자극적인 온대지역이 세계문화를 선도해 온 것이 사실이나 열대지방이나 한대지역도 나름대로의 특유한 문화권을 이루어 왔다. 자연환경도 문명의 틀을 달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는데 대륙국가나 반도, 섬 등의 각가지 형태에다 사막, 광야, 평야, 산지 등의 지형에 따라서도 다양한 특색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왔다.

범죄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자연 발생된 부작용으로서 인간의 본성은 아담 타락이후 원천적인 범죄성을 갖게되어 인간의 본성은 악이라고 할 것인데 범죄는 이 악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당연한 산물인 것이다. 범죄 중에서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원초적인 것들과 문명발전으로 인해 형성된 부차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날 각국 형법상의 기본적인 범죄들 중 많은 부분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원초적인 성격의 범죄이다. 그 중에서 성범죄는 살인이나 절도죄 등과는 달리 인간의 부패성에서부터 나온 전형적인 범죄이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절도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범죄는 인간의 악한 기질에서 유출된 간접적인 범죄인 것이다. 특히 절도, 강도같은 본성형 범죄는 생명유지의 차원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고 살인도 그 동기 여하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는 인간의 부패성에서 유출된 것으로 향락적, 타락적 성격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반문명적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각종 성범죄를 살인죄와 같은 차원에서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절도나 강도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향락추구적 범죄로 동정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의 기원을 성경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주로 구약 신명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신명기적 기록인 선사-고대시대의 성범죄는 그 양상이 오늘날 우리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들의 양상을 보는 것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i) 형법상 성범죄의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ii)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범죄를 고찰함에 있어 성범죄의 기초인 고대의 결혼제도, 간음죄의 성경적 본질, 음행의 양상, 간음죄의 성경적 대책 그리고 간통에 관한 각종 규례들을 구명하였다.

이 논문이 성경을 현대문명의 기초로 인식하여 오늘날의 제도문물의 기원을 성경으로부터 찾으려는 노력의 일부로서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는 연구자들이나 성범죄의 초창기적 양상을 통해 오늘날 성범죄와 비교함으로써 성범죄적 기초를 확실히 밝히므로써 성범죄를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현행법상 성범죄의 성격과 내용

### 1. 성범죄의 의의

성범죄는 종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던 것을 1995년의 형법 개정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그 명칭을 구체화하였다.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적 자유의 하나인 성적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흉악범의 하나이다. 그러나 형법에 의해 이같이 보호되는 개인의 자유는 소극적인 보호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도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이다. 성범죄는 주로 강간죄를 말하는 것으로 풍속에 관한 범죄인 간통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 2. 연혁 및 입법례

강간죄는 로마법에서 폭행죄(Crimenvis)의 성격으로 규정되었고, 게르만 법(Stuprum violentum)에서는 성적명예(Geschlechtsrehe)의 침해와 동시에 강도와 공통성을 가진 범죄로 파악되었다. 1704년의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에서는 부녀를 강간하거나 12세미만의 소녀를 간음한자를 처벌하였고,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에서는 남녀 양성에 대한 강제추행, 성교강요를 강간이라 함으로서 오늘날의 강간죄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sup>1)</sup> 영미법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부녀와의 불법 성교인 강간(rape)과 동의연령은 미달되지만 스스로 원하는 여아와의 불법성교인 유아간음(carnal knowledge of child)을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보통법상의 중죄, 후자는 특별법 상 개별적 중죄로 취급하였다. 영국의 어떤 古法에는 10세미만의 소녀에 대한 불법성교는 그녀의 의사에 반하는 것과 관계없이 중죄로 처벌하였다.<sup>2)</sup> 피 간음자의 연령이나 동意的 여부에 따라 형벌의 차이를 두기도 했는데 16세 미만의 소녀를 불법으로 간음하거나 능욕하는 자는 1년이나 2년 이하 징역에, 14세 이상의 소녀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이나 간음한 경우, 14세미만의 소녀를 능욕하는 자는 수년간의 징역에 처하고, 14세에서 16세 미만 소녀를 간음한 18세의 자에 대해 500불 미만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기도 하였다.<sup>3)</sup>

1) 배종대, **형법각론(4판)**(서울 : 홍문각, 2001) 223.

2)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3, 249

3) 진계호, 249

성범죄에 관한 입법제도는 ① 독일은 종래 풍속에 관한 죄로 규정하던 것을 1973년 11월 23일의 제 4차 개정형법에서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로 하여 i) 성적자유에 대한 죄로 강간(§174), 강간추행(§178), 준 강제추행, 준 강간(§179), ii) 보호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행위로 유아, 소녀 등의 성적발육을 방해하는 죄로 피보호자에 대한 성행위(§174), 18세 미만의 남성을 상대로 한 18세 이상의 남성의 성행위(§175), 유아에 대한 성행위(§176)를 iii) 성적곤혹 죄로 남성의 성기노출(§183), 공연음란(§183), 음란도서, 도서음서의 양도, 교부, 진열, 연극, 방송(§184)죄를 규정하여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으로 하고있다.

② 일본 형법은 사회법익에 대한 죄인 추행, 간음 및 중혼의 죄 장에서 강간, 강제추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③ 우리나라는 간통 등은 풍속을 해하는 죄로서 사회법익에 대한 죄로, 강간 등은 개인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는 폭행, 협박으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간죄 등인 것으로 강제추행 죄(§268)를 기본 범죄로 하고 불법 가중적 규정으로 강간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4)</sup> 성범죄에 대한 우리 형법의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즉 성생활에 관한 범죄를 3종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① 혼인 생활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로는 간통죄가 있고, ② 일반 사회의 성적 도덕 감정을 침해하는 것, 곧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성 질서를 보호하는 것으로는 음화 등의 반포죄, 음화 등의 위조죄, 공연음란죄, 음향매개죄 등이 있다. ③ 개인의 성적 자유와 정조를 해하는 범죄로는 형법이 개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해당된다.

4) 배종대, 223.

5) 이태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1998), 234.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자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지만 부차적으로는 사회적 풍속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형법에서는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사회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풍속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sup>6)</sup> 본죄의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일률적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sup>7)</sup>

### 3. 성범죄의 현황

성범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성인들에 있어 강간이나 추행의 경우도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나 성인, 특히 기혼자에 있어서의 성행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할 뿐 아니라 혼전의 성적 순결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적 사회적 이해와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2세 국민의 성결을 위해서도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의한 1995년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표한 상담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① 강간은 상담자의 73.7%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27.4%가 친족들이었고, 특히 아버지, 오빠 등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18.3%, 사촌 오빠 등 친인척 9.1%로 나타났다. 강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아온 통상적인 관념을 깨는 보고가 아닐 수 없다. 또, 직장 상사나 동료 23.5%, 데이트 상대 12.9%, 동네사람 11.1%, 동급생, 선후배 5.6%, 교사, 강사 3.8% 순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로부

6) 김일수,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1. 137.

7)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142

터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② 남자들도 성범죄 피해자로 상담된 경우들이 전체의 4.8% 정도이지만 이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청소년 보호단체 일각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다음 형법개정 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III. 성경에 있어 간음죄의 성격 및 대책

#### 1. 간음죄의 성경적 의의

성경에서 간음은 합법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자와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에서의 간통이나 강간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간음은 보다 넓은 의미의 성풍속에 대한 범죄로 간통이나 강간을 포함한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거나 성적유혹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sup>8)</sup> 성경에서는 구약 출애굽기 제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시민법적 규례를 수여 받았는데 기본적인 것은 10가지의 계명이었다. 그 중에서 제 1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는 인간(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할 법도에 대한 종교적 규례이고, 제 5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의 6개 항목은 인간(백성) 상호간에 지켜야할 시민법적 성격의 질서였다. 그 중에서 간음에 대한 규정은 제 7계명인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기 제 20장 14절에서 간결하게 “간음하지 말찌니라”라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이 계명은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육체의 순결을 지킬 것

8) 이태언, 형법각론

9) 이태언. 모세5경의 법적연구, 브니엘, 2001

을 요구하신 성생활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불결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가지고 계시므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간음을 금하는 다른 이유는 혼인의 순결 즉 배우자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성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적유혹에 빠지지 쉬운데 과거 한국교회는 영권이 강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건전하지 못함을 이유로 권징으로서 징계를 많이 활용했는데 특히 7계명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간음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혼인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룸에 대한 약속이요 선언인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부부관계의 성립은 두 사람관계 뿐 아니라 친척과 친구 등,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혼인서약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이들간의 약속에 관여하시고 인치시기 때문에 혼인서약의 위반은 하나님의 명예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sup>10)</sup>

## 2. 간음죄의 성립조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에이아로 ①근친상간의 결혼 ②결혼전의 부정 ③계속적인 음란한 행위, 문란한 성생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결혼윤리를 절대적 윤리로 보셨는데 이는 ③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인다. 간음은 정당한 혼인 이외의 방법으로 이성을 취하는 것이지만 음행한 연고없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것도 본처에 대해 간음하는 것이 된다.<sup>11)</sup> 즉 이혼하는 이유는

10) 결혼하는 남녀가 모두 교인인 경우 교회에서 목사의 주례로 혼인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가운데도 이혼율이 로서 전체 이혼율 40%와 크게 다를 바 없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19:9)



여자가 혼전 음행하는 경우 한가지 뿐 인데 그 이유 외에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했으니 i)독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취하여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보고, ii)뿐만 아니라 버린 여인에게 장가가는 것 또한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된다.<sup>12)</sup> 위의 경우는 남자를 중심으로 간음의 성립을 파악한 것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간음이 된다.

성경에서는 간음의 의미를 주로 이혼을 전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혼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간음죄를 범하는 범죄 행위인데 이를 잘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이까(마19:3)”라고 질문한데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sup>13)</sup> 라고 대답하셨다. 구약에서 모세가 아내를 마음대로 내어 쫓지 못하도록 법적 수단이 되는 이혼증서를 주어 내어버리라고 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19:4-8) 라고 하시므로 혼인제도의 본래의 의미를 밝히신 것이다. 모세의 이 같은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중 완악한 자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제거

12)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눅16:8)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마19:4-7)

하거나 살해하기도 하고 혹독하게 학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보다는 덜 나쁜 방법으로서 이혼증서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함에 불과 하였다. 이는 모세가 당연한 합리적 방법으로서 이혼제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내쫓는데 대해 고통을 주려는 일시적인 허용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온 것이므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해서는 안되지만 당시의 공식적인 관례를 수정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바른 개념을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뿐, 본래는 남, 여가 결혼을 한 이상 어떤 연고로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Adam)에게 돕는 배필로서 이브(Eve)를 창조하여 짝지워 주신 정신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들에게 시행하신 것으로 일부일처 제도가 결혼의 근본 규례인 것이다. 창4:19에 일부다처제가 나오는데 이는 살인이나 복수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모세가 이혼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신 최초의 원칙으로 환원시킴으로서 하나님의 법령의 존엄성을 확인하여 모세의 말을 악용하려는 잘못된 사악한 기회 즉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충돌과 같은 현상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즉 구약에서 모세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어 쫓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신24:1-4에 입각하여 이혼증서로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이혼을 인정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이 같은 일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인간의 행위가 완악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또 여러 방법으로 여자를 내어쫓음으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를 양성화 내지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세가 이혼증서를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신24:1)”라고 한 것은 아내가 혼전에 간음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 처녀성을 잃었을 경우에는 남편은 이같은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19:9)”는 예수님의 말씀이 합법적인 이혼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같은 대화는 헤롯. 안티바스(Helod Antipas)<sup>14)</sup>가 다스리는 페니키아<sup>15)</sup>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은 갈릴리나 유대보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적은 곳이어서 예수님은 초기에 그곳에서 사역하였다. 당시 유대사회를 지도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랍비학파였으나 랍비학파도 헬렌을 대표로 하는 헬렌(Hilien)학파와 샤마이(Shamai)를 대표로 하는 샤마이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와 같이 랍비학파는 두 개로 나누어져 여러 면에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혼에 대해서도 헬렌학파(Hilien)에서는 결혼서약의 위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유 즉 i)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ii)더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심지어는 iii)아내가 저녁식사 요리를 형편없이 잘못하는 것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샤마이학파(Shamai)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이혼의 조건을 들고 있는데 i)간음의 경우 ii)간통이나 순결을 잃은 경우에 한정하였다.<sup>16)</sup> 교회가 요세퍼스(Josephus)는 어떤 연고이던 그러한 많은 이유는 남자에게 일어난 것으로 자신과 함께 살아온 아내와 헤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그녀와

14) 헤롯 안티파스는 안티파넬의 아들로써 유대왕으로 임명되었는데 하스몬 왕가의 왕녀 마리안느와 결혼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했으나 유대사람의 환심을 사지 못했다. 그는 이교도 땅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로마적인 것을 동경하여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도 건립했고 사마리아 도시와 가이사라의 항구도시를 그리스식으로 다시 설계했다.

15) Penicia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지역 지중해에 면한 지역이다.

16) 풀뫼, 풀뫼주석, *마태복음(中)*. 베텔성서간행사, 1985, p. 677.

함께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그녀에게 써주어야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sup>17)</sup>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대체로 성도덕이 엄격하여 방종스러운 모든 성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처벌되었다. 기혼자의 경우는 이와같이 더욱 엄하게 규제된 것은 혼인이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본 때문이었다.

### 3. 간음의 전제로서의 결혼제도

간음은 혼인으로 인해 성립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가정의 윤리를 지킴으로 인해 가정의 제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가정은 국가나 사회, 나아가서 교회의 기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가정이 굳건하게 지켜지지 않고서는 인간의 단체적 질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 1) 성경적 가정의 윤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받았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하는 생의 반려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결혼은 인간적인 욕구충족의 차원을 넘어 인격적으로 결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부부는 가정의 신성함을 지킴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세 시대에는 주변 가나안 지역의 종교들은 그들의 제사의식을 통해 성적방종을 허용하는 다산의 종교였다.<sup>18)</sup>

17) 요세퍼스 자신도 이혼을 했으나 “그녀의 행실에 불유쾌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vita §76 에서 말하였다.

18) 당시 가나안지역(중동)에는 일부다처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종족의 번성을 위해 많은 자녀를 원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하는 제 7계명을 주신 것이다.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대되어 과거 가정을 지키며 남편만 바라보며 살던 때와는 달라서 부부는 많은 부분에 걸쳐 대립과 갈등을 겪게되어 이혼이 크게 증가하여<sup>19)</sup>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결혼 후에 다른 이성을 접촉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쉬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여 행위이전의 생각자체를 범죄시 했던 것이다.

## 2) 가정의 보호

성경적 결혼관은 부부가 사별하지 않는 한 결혼은 평생 한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정해주신 것으로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sup>20)</sup> 결혼 후 아내가 수치스러운 것을 하면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주어 이혼하도록 했는데 그 때야 다른 대상들과 재혼이 가능했다. 결혼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sup>21)</sup> 잔악한 방법으로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혼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의 범위(결혼제도의 유지)가 준수되어야 한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sup>22)</sup> 라는 것이 성경의 결혼관이다. 이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함으로서<sup>23)</sup> 혼인제도의 의의와 결혼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혼인제도는 에

19)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30%를 넘어서고 있다.

20)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19:6)

21) 요한복음 8장 4-5절

22)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전 7:2)

23)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덴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 비롯된다. 즉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뼈를 빼어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만든 뒤 아담과 결혼을 하도록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어 사역의 첫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 혼인제도를 인정하고 축복된 것으로 보아 도와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신비한 연합의 예표로 보고있다.<sup>24)</sup>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1) 남편의 의무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다스리는 것으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데<sup>25)</sup> 머리는 통치와 심판의 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 이성적으로 i)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한다. ii)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잠5:18)란 말씀은 이중결혼이나 일부다처제를 배척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를 괴롭히는 행위를 배제하는 사려깊고 부드러운 사랑이어야 한다. iii)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한다.<sup>26)</sup> 즉 연약한 그릇을 대하듯이 신중하게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며 아내의 연약성과 결점을 숨기거나 용납해야 한다. iv)부부간의 사랑은 동시에 상호적이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서로(상호) 애정이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자기의 편이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결혼은 비난받을 뿐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24)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하라(엡 5 :25)

25)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엡5:23)

26) 남편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i)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며 보호해야 하고 ii) 남편은 아내의 행복과 즐거움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iii)아내의 생명과 영예와 이름을 지켜주어야 한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iv)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아내는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 2) 아내의 의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주께 하듯이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명령 복종의 관계는 아니다.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자연스럽게 정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적 표현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이다. 테일러(Jeremy Ik Taylor)는 남편은 아내를 권위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아내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남편을 즐겁게 해야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같은 아내의 복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i)남편에 대한 복종은 굴종이 아니다. 즉 종이 주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고 남편의 지도를 정당하고 온화하고 현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복종인데 순종보다는 다소간 강제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ii)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복종을 말한다. 가족사이에는 두 개의 지배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교회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항상 종용하라고 가르친다.<sup>27)</sup> iii)제한된 범위에서의 복종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아내는 이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나 모든 부분에 걸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하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은 아니다. iv)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의무인 사랑을 전제로 한 상호적인 것이다. 정당한 결혼은 상호간 애정이

27)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지니라(딤후 2:12)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편의나 이기심에 의한 결혼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v) 모든 연합이니 아내에 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사랑이나 복종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간음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를 든든하게 규정하여 결혼이란 고리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철저히 연관시켜 놓았는데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합한다는 것은 관심이 일치하고 소유물이 같고 세상에서의 관계가 한몸을 이룬 것처럼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아내는 남편에 있어 또 다른 자아로 보는데 아내는 남편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과 위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는 배필로서 남편의 훌륭한 동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세한 아내로되”<sup>28)</sup>라는 입장이다. 아내는 연합한 그릇이기 때문에 기사도 정신으로 사랑의 방패로 보호해야 하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sup>29)</sup>고 하였는데 아내는 남편에 있어 명예이고 장신구와 같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 대해 자기 희생과 봉사의 관계에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결혼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는 사랑과 성실인 것으로 사랑은 애정의 밀접한 결합을 의미하므로<sup>30)</sup> 몸은 둘이로되 마음은 하나인 것이다. 사랑은 명예를 분담하는 것으로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서로 분담함으로써 수월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관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이 없이는 연합(Conjugium)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다름(Conjurgium)

28)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세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말라기 2:14)

29)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전11:7)

30)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하라(엡5:25)



과 언쟁만 계속되게 된다. 위속에 있는 두 독약처럼 부부가 서로 역겨워 하게되면 결국 혼인서약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게 되는 최악인 간음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시대에는 결혼날에 여자는 남편에게 불과 물을 증정한 예도 있었는데 불은 세련된 것을, 물은 청소를 뜻하는 것으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정숙과 성실 가운데 부부의 도리를 다 하겠다는 것을 뜻하였다.

#### 4. 간음죄의 성경적 견해

##### 1) 간음죄의 본질

간음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성적자유이며 동시에 혼인의 순결이다. 간음은 섹욕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아담의 타락이후 부부간의 거룩한 사랑이 섹욕으로 전락하였는데 섹욕은 영혼의 열병인 것으로 두가지 형태가 있다. ①마음으로부터의 간음이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였다. 사람이 내출혈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내부적인 섹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모든 최악적인 행동이전에 그것을 자라게한 사고의 씨를 생각할뿐 아니라 최악된 행동이 발생한 후에는 그 동기를 생각하고 동기로서 적극적으로 작용한 것 뿐아니라 어떤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지않은 것도 본질적으로 최악인 것이다. 주관주의 형법적 사고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결과가 없어도 반사회적, 반질서적 심정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게되어 있다. 간음죄는 전통적인 경향범인데 간통의 행동에 착수하기전에 음흉한 내심이 얼굴에 표현될 시점을 착수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범죄의 경우 심정만 가지고서는 음모나 예비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과형법과는 거리가 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까지로 확대하셨는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당한 욕망도 부당한 행동과 같이 보신 것이다.<sup>31)</sup>

31) 풀빛, op.cit., p. 73.

주님께서서는 범죄행위나 범죄적 생각을 동일하게 간주하신다.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범죄적인 것이다. 거룩해야할 곳에 부정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죄요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같은 범죄적 구성요소는 초창기 의식의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완전히 분쇄하여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경각심과 자기 부정의 생활이 뒤따라야 하는데 나중에 쫓김을 당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다. 심판 때 영과 육이 지옥에 가는 것 보다는 육신은 불구가 되어도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율법에서는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눈으로 똑바로 주시하거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시하거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에게 말한 것도 금지된 것이다.<sup>32)</sup> 이것은 주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결과 때문에 정죄된다.

#### ②육체의 죄이다.

이것은 범죄적인 생각이 범죄적인 행동으로 나아간 경우이다. 제 7계명은 음란을 막기위한 율타리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무는 것 그 자체가 범죄이다. 욕은 간음을 중죄라고 했다.<sup>33)</sup> 모든 실수가 다 범죄가 아니며 더욱이 중죄가 아닐 것이나 간음죄는 수치스러운 범죄(Flagitium) 즉 중죄라 보았으며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sup>34)</sup>”라고 하심으로 이를 악행이라고 규정하였다. 간음의 범죄성은 ①남, 여가 결혼이란 방법으로 결합될 때 부부관계에서 진실하고 성실할 것을 각자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32) Maimonides, Hilck, Ab, Zar.

33)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욥31:11)

34)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렘29:23)

때문에 결혼의 서약위반 때문이다. 음란은 이 엄숙한 맹세를 거짓되게 하므로 간음죄는 부부의 연분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보다 더 악한 것이 된다. ②이 죄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어서 큰 죄가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찌니라”하셨는데 간음한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두고 명령을 짓밟으므로 정면으로 모욕함과 같은데 이는 신하나 백성이 왕의 포고문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간음자는 3위 하나님 모두에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같은 불경 때문에 죄가되고, 성자 하나님께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에 대한 배신 때문이다.<sup>35)</sup> 값을 주고 산 사람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허락도 없이 대가를 주고 자기를 사신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기 때문이다. 또한 세례를 받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신분을 취득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sup>36)</sup> 주님에 대한 큰 불법인 것이다. “너희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sup>37)</sup>라고 하였은즉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몸은 성령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것은 큰죄가 되는 것이다. ③무엇보다도 간음죄는 계획적인 고의성 때문에 더욱 가중한 것이다. i)마음에 죄를 도모함이 있고 ii)의지의 승인이 있고 iii)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발적인죄(자연의 광명에 거스려 죄짓는 것과)와는 달리 고의적으로 죄짓는 것은 양털에 대한 물감과 같아 이것이 죄의 색깔을 질게 해주는 것으로 죄를 주홍색으로 물들이는 결과가 된다. ④간음죄를 엄하게 보는 것은 불필요한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같은 죄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제도를 마련해주신 것이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고전7:2)”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

35)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36)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전6:15)

3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므로 이같은 방법(결혼제도)이 마련된 후에도 음행이나 간음죄를 저지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부자가 좀도둑처럼 훔치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간음죄의 범죄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 2)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 (간음의 결과)

①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면서도 고급매춘부를 거느리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같은 악행은 간음행위이다. 뿐만아니라 극악한 류의 음란 곧 근친간음도 돈주고 특사를 받곤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음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② 간음은 도적의 일종으로 최고의 도적질이다. 그 이웃의 소유인 재산보다 더한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이웃의 살중의 살인 아내를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간음은 사람을 짐승을 닮게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천하게 만든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 중에도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 어느 정도의 단정과 정절을 지키는 것도 있다. 산비둘기는 정숙한 동물이어서 그 짝을 굳게 지키며, 황새도 어디를 날아가든지 자기둥지가 아니면 들지 않는다. 박물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 황새가 자기 짝을 버리고 다른 것들과 결합하면 나머지 모든 황새들이 덤쳐 그의 깃털을 뜯어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간음죄는 짐승보다 더 악해서 사람의 존귀성을 타락시킨다.

④ 간음죄는 주위에 오염원이 되는데 더러운 영인 마귀의 조종을 받게된다. 신자의 몸은 살아있는 성전이나 창녀의 몸은 걸어 다니는 거름 더미요 그의 영혼은 작은 지옥이다.

⑤ 음란한 짓을 계속하면 건강도 해치게된다. 신체의 근원적인 수액을 낭비하여 결핵과 골을 썩히고 얼굴의 아름다움도 스러지는데 불꽃이 초를 소모시키듯 색욕의 불은 뼈를 소모시키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가 된다.

⑥ 간음죄는 금전의 낭비를 가져오는데 몸을 낭비할 뿐아니라 재산도

탕진한다. 잠언에도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sup>38)</sup> 라고 했는데 음녀는 돈을 빨아먹는 해면으로 탕자는 창녀들에 빠져서 그의 상속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에드워드3세의 첩은 그가 죽어갈 때 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었고 심지어는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들을 뽑아 가지고는 그를 떠나버렸다고 한다.<sup>39)</sup> 음녀와 사치 속에 사는 자는 결국 빈궁속에서 죽게된다.

⑦ 간음은 명성을 파괴한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되나니”<sup>40)</sup> 군인은 전쟁중에 부상을 입으면 영예를 얻게되고 순교자의 상처에도 영광이 가득하나 간음자의 상처는 치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죽어도 수치는 살아있고 그의 몸이 땅속에서 썩을 때 그의 이름은 땅위에서 썩으며 그의 친한 태생의 자녀들은 그의 수치의 살아있는 기념물이 된다.

⑧ 간음은 마음을 훼손하는데 이해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심령이 마취된다.<sup>41)</sup> 솔로몬은 여자들과 취한 결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아 결국 그의 만년은 초기의 명성만큼 아름답지 못하였다.

⑨ 간음은 현세에서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죄를 사형에 해당하도록 하였다.<sup>42)</sup>

색슨인들은 간음중에 잡힌 사람은 화형시키도록 했고, 로마에서는 간음자의 머리를 베어버리도록 하였다. 색욕은 기쁨으로 왔다가 슬픔으로

38)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잠6:26)

39) 토마스 왓슨, **십계명해설**, 이기양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221.

40)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잠6:32-33)

4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호4:11)

42) 너희는 그들을 돌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육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한지니라(신22:24)

가버린다.(Laeta venire venus, tristis abire solet)<sup>43)</sup> 간음으로 충만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유향불로 멸망을 당하였다.

⑩ 간음은 회개 없으면 영혼을 멸망시킨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고 하였다.

⑪ 타인의 아내를 통간하므로써 간음한자는 자신의 영혼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이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할만한 짓을 다 함으로서 한꺼번에 둘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간음은 강도보다 더 악한데 강도는 재물만 뺏고 살인강도라 하더라도 그의 육신은 뺏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간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며 그의 힘이 미치는 한(할 수만 있다면) 그의 상대인 여자의 영혼구원까지도 박탈하여 상간한 두 사람이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된다.

⑫ 간음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자는 거기 빠지리라”<sup>44)</sup>고 하였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한 불행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미워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되면 최고의 비극적인 인간이 된다.

⑬ 간음은 불화의 원인이 된다. 평화와 사랑이 본질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남편을 아내에게, 아내를 남편에게 대립시킴으로서 같은 몸의 관절들이 서로 대치함으로서 가정 불화로 분열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망하게 되어있다.<sup>45)</sup>

⑭ 간음으로 인해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 레위기 19장 29절에는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사회와 나라 전체가 음란으로 가득찰까 두렵다.”고 하였다.

43) 토마스왓슨 (이기양역), 221

4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잠22:14)

45)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눅11:7)

⑮ 수한이 빼앗김을 당한다. 잠언 5장 8-9절에서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되면 네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고 하였다.

⑯ 땅이 더러워지게 된다. 세상사람들이 행음자가 그 아내를 버리거나 그 남편을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땅이 크게 더럽혀지게 되는데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46)</sup>

### 5. 간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대책)

① 음녀와 같은 여인과 동석하지 말 것이다. 항해하는 사람이 암초를 피하듯 음녀의 집을 피하되 그 집문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되는데<sup>47)</sup> 역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려면 전염된 집가까이 가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죄에 가까이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손가락을 촛불속에 넣고도 타지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② 눈을 조심하라 대부분의 죄들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sup>48)</sup>라고 하였다. 눈은 공상을 갖게하며 공상은 마음에 역사 하게되고 음탕하고 호색적인 눈은 결국 죄를 끌어들인다. 최초의 범죄자 하와도 선악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던 것이다.<sup>49)</sup> 눈은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욕은 “내가 내눈과 언약을 세웠으니 어찌 처녀에게

46)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렘3:1)

47)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잠5:8)

48)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벧후2:14)

49)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3:6)

주목하라”<sup>50</sup>)고 하였으며 철학자 데모크리투스는 헛된것들로 인해 유혹을 받고 싶지않아 자기눈을 빼어 버렸다고 한다. 성경에도 눈앞에 감시자를 두라고 하였다.

③ 입을 조심해야 한다. 불미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불결한 말을 할까 조심해야 한다. 고전 15:33에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했다. 불순한 담화는 색욕의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풀무이며 많은 악이 혀에 의해 마음에 전달되므로 시편 14:3에서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라고 노래하였다.

④ 생각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유혹자를 갖고있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sup>51</sup>)라고 했다.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죄의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된다.

⑤ 복장을 조심해야 한다. 음탕한 의상은 색욕을 도발한다.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하는 것과 땅는 것, 얼굴에 화장하는 것, 벌거벗은 유방은 허영심을 자극하는 유혹물이다. Jerom은 음란한 복장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색욕으로 유도하려 힘쓰는 자들은 비록 아무런 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혹자들이며 자기들은 마시려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독약을 권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sup>52</sup>)

⑥ 악한벗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악덕은 이웃에게로 퍼지며 그들에게 옮겨가는 것이다. (Serpunt vitia at in proximun guemgue transiliunt), 즉 악덕은 바깥으로 퍼져 누구든지 옆에 서있는 자에게 달려든다.(Seneca), 죄는 전염성이 큰 병인데 사람들을 간음죄에 빠지게 하는 방법은 마음의 성향, 악한 친구들의 설득, 창녀의 포옹인데 이 3개로 묶인 삼겹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다. 색욕의 불은 나쁜 친구로부

50)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욥31:1)

5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15:19)

52) T. 왓슨(이기양역), 224



터 일행 모두에게로 퍼져 태우게 된다.

⑦ 연극구경이나 혼성댄스를 조심해야 한다. 극장은 음녀의 집에 이르는 길목이 될 수도 있고 연극은 죄악의 씨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춤은 방탕의 도구인데 춤을 추게 되면 상대방과 육체적 애무를 하게 되고 이에서 음란으로 발전된다. 칼빈은 “춤추는데는 대부분의 경우 얼마간의 정숙치 못한 행동이 따른다”<sup>53)</sup>고 했다. 춤은 음탕한 몸짓과 정숙치 못한 촉감과 호색적인 표정에 의해 마음을 어리쉬게 만든다. 댄스는 음란한 여자에게 이르게하고 정숙한 여자에게 이르게하지 않는다.

⑧ 음란서적과 색욕을 도발하는 그림을 조심하라.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나쁜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부도덕에 향하도록 부추킨다. 음란한 그림은 눈을 호리며 색욕을 부추키는데 마음에 독을 비밀리 전달해준다. “보는 사람은 죄없어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있게 된다.(Qui aspicit innocens aspectu fit nocens) 이렇게보면 가톨릭교에서의 여러 성화들도 음란한 그림들이 많은데 이들로 욕정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부추길 수도 있다.

⑨ 과식을 조심하라. 폭식과 폭음이 포장마차를 앞에서 끌 때 음란과 방탕은 후미를 말는다는 말이 있다. 술은 색욕의 자극제이며 떡의 풍족함이 소돔의 음란의 원인이 되었다.<sup>54)</sup> 가장 무성한 잡초는 가장 비옥한 토양에서 성장하는데 음란은 과도한데서 발생한다. 과도, 폭음은 절제의 반대이다. 지나치게 먹인 육체는 반역하기 쉬운데 살찌게 먹인 육체는 불순종한다.(Corpus impinguatum recalcitat) 피조물의 무절제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정서를 질식시켜 색욕을 유발시킨다.

⑩ 게으름을 조심해야 한다. 직업이 없으면 무슨 유혹이나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람은 묵은 땅에는 씨를 뿌리지 않으나 마귀는 묵혀져 있는 땅같은 곳에 씨를 가장 많이 뿌린다. 게으름은 남색과 음란의 원인이

53) T.왓슨(이기양 역). 225.

54)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겔16:49)

된다.<sup>55)</sup> 다윗도 집 꼭대기를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어 음란의 죄를 범했다. Jerom은 친구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항상 근무를 잘함으로서 마귀가 올 때 유혹에 귀를 기우리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①① 무엇보다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를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에스겔의 아내는 그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sup>56)</sup> 수천의 후궁을 거느렸던 솔로몬은 매춘부를 멀리하는 비결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sup>57)</sup>고 했다. 사람이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집밖에 가서 집안의 정결한 물대신 탁한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에서 온다. 아내를 사랑치 않는자는 다른 여자의 품을 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①② 하나님의 두려움을 맘속에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레 악에서 떠나게된다.<sup>58)</sup> 제방의 둑이 물을 막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음란을 막는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sup>59)</sup> 문지기가 문간에서 부랑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죄스런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55)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겔16:49)

5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겔24:16)

57)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잠5:18)  
솔로몬은 BC 960년경 유다 제 2대왕으로 취임하여 역사 이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인데 유다(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 왕비 외에도 후궁이 700명으로 ----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

58)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16:6)

5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

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원에 비유하였다. 우리가 정원을 거닐면서 약속의 꽃들로부터 단 것을 빨아먹는다면 우리는 결코 금단의 열매를 따지 않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성경으로 하여금 나의 순수한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Sint custae deliciae meae scripturae, Augustine)이라고 했다.<sup>60)</sup>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스런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Cuesar는 말을 타고 시가지를 지나다가 개와 앵무새를 가지고 장난하는 여자들을 보고 “분명 저들은 자녀들이 없다.”고 했다. 창녀들과 희롱하는자는 더 좋은 쾌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⑭ 간음죄를 끊기 위해서는 i)하나님은 죄를 행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배후의 모든 죄악을 보시는데 그는 “전체적인 눈이기(totus oculus) 때문에 구름이나 어둠이나 그 어떤것도 하나님의 눈에서 숨겨줄 수 없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재판관이 반드시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ii)간음죄에 끌려든 사람중 그 울가미에서 헤어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자는 돌아오지 못하는데<sup>61)</sup>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간음죄는 사함이 없는 죄라고 결론을 내린다. 간음죄에 흘렀다가 풀려나온 다윗이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공의 경우는 극소수이다. 폴타크는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첩들에게 빠진 포로들이었다.”<sup>62)</sup> 고 했다. 부드러운 쾌락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iii)하나님은 간음하는자에 대한 증인이 되시겠다고 했다.<sup>63)</sup> 하나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증인으로 처하게 함은

60) T.왓슨 (이기양 역) 227.

61)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2:19)

62) T.왓슨 (이기양 역) 227.

63)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삶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말3:5)

비극인 것이다. 간음은 순간적인 쾌락을 얻고 영원한 고통을 얻는다.(Jerome) 관능들이 음란한 쾌락으로 잘 대접받고 나면 영혼은 남아서 계산을 지불한다. 죄는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있다.

⑮ 음란의 죄가 발동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루터는 어떤 육욕이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기도하러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도는 꿇을 수 없는 최선의 갑옷으로 색욕의 사나운 불을 꺼준다. 기도가 마귀를 쫓는다면 마귀에서 나온 색욕을 못쫓을 리가 없는 것이다.

#### IV. 간통에 관한 규제

간통한 사람에 대한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규제는 통간한 그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이다.

##### 1. 유부녀와의 간통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는 경우 상간자 둘을 다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간통이란 남자와 여자가 합의해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여자는 유부녀로 기록되어있으나 남자에 대해서는 결혼 유무에 대해 말이 없다. 그것은 이 법칙이 유부녀의 정조를 보호법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남자든 지간에 그 여자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 간통했다면 우선 그 여자의 순결을 욕되게 하고 그 가정의 신성을 파괴하는 악을 범한 것이 되고, 여자는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통간했으므로 먼저는 자신을 욕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벌이 되었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부녀와의 간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에 도전한 행위이므로 즉 일부일처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 질서

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악한 것이 된다. 성은 부부 쌍방에게 독점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간 같은 성의 공유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져오고 원심(怨心)과 결국 살인을 가져오며 사생아나 서자를 만들어 내게됨으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도덕의 타락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형으로 다스리게 함으로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 2. 약혼한 여자의 간통 (성(城)중에서의 간통)

약혼한 여자와의 간통은 약혼한 처녀도 결혼한 유부녀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sup>64)</sup> 그러므로 약혼한 처녀와의 성범죄는 약혼이전 처녀의 성범죄보다 무겁고 엄하게 취급한다. 간통은 쌍방합의에 의한 것으로 성읍 가운데서 저질러진 간통은 화간으로 보고 여자에 대한 정상 참작이 전혀없다. 왜냐하면 성읍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므로 강간이었을 경우는 소리를 질러 수육을 피할 수 있는데도 교합했다면 이는 화간으로 간통과 다름없이 보았던 것이다.

### 1) 간통의 기준

율법에서는 약혼한 처녀가 성읍 중에서 이웃이 모르게 통간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만일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했다면 남자만 강간죄로 처벌되게 하였다.<sup>65)</sup> 즉 간통과 강간의 차이는 간음 현장의 환경적 조건과 여자의 자구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준에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되는데 강간의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현대 대부분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 자발

64)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 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신20:7)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1:18-19)

6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신20:24-25)

적인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애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법과는 정면으로 대립된다. 이같은 주장의 큰 잘못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2) 처벌

이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i)성범죄에 대한 율법의 단호함을 보여준다. 율법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의 통간을 제외한 모든 간통에 대해서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도록 엄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함에도 공개적으로 대중들에 의해 집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성의 남용과 무질서를 단호히 배제시키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것이다. 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니 성의 타락은 곧 생명의 타락을 가져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sup>66)</sup>

## 3) 가정파괴의 사회적인 양상

간통 등으로 인한 성의 타락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사회파탄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간통으로 이혼이 유발되어 가정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부부간에 겪게되는 피해는 그 인격과 사회적 체면을 실족시키며 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되어 정상적인 삶이 지속되기 어렵게된다. 또한 결혼 자녀를 양산케 되어 불량청소년이 되게 하고 고아나 사생아를 증가시켜 사회에 큰 부담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은 성적타락 현상이 사회에서 만연될 때 사회전체의 구조적인 인식이 성의 쾌락에 탐닉케 되어 땀흘려 일하는 건전한 삶의 형태가 무너지게

66)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된다.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사회 파괴적 행위를 용납지 않으려는 성적건전성을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었다. 성은 가정윤리와 사회도덕의 보루이며 신앙의 건전한 토대를 구축키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 4) 들에서 강간한 경우

신명기 22:25-27에서는 남자가 어떤 약혼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한 경우의 규례인데 이때는 강간한 그 남자만 죽이도록 되어있다. 여기서의 남자는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남자로 주체는 사실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객체인 여자는 약혼녀에 한한다.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남자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인데 남녀간의 성행위는 쌍방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남의 아내로 약혼한 여성의 성을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함은 능욕이요 인권유린이기도 할 뿐 아니라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된다.

#### 5) 야외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

i)야외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에서 ii)동의 없이 강요된 iii)성적능욕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환경이란 구조를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이는 강간과 간통을 구별하는 중요한 객관적 요소가 된다. 강간은 능욕된 성으로서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a)결혼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b)쌍방간의 자발적인 동의 곧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하고 c)상호존중 되는 가운데 행해지도록 해야하며 애정의 증진과 자녀의 생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간은 성의 능욕이요 유린인데 이는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 것이다. 가)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과 동침함에 있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으로 억지로 동침함으로써 방안에서 강간을 한 경우 나)그러나 성읍중에서도 하위족속

중 그밖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켄이 야곱의 딸을 끌어들이 강간한 경우(창34:2)는 이와는 경우가 다르다.

#### 6) 피해자인 처녀

본문은 남자가 가해자이고 여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법의 정신은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 정신인데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경우 남자만 사형시키는 것은 그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강간죄의 죄질을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자의 성을 생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자의 성은 생명의 발원지로서 생물학적 의미와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절로 표현되는 인격적인 생명을, 그리고 도덕적인 건전성을 입증하는 사회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인격적, 사회적 생명인 성을 탈취하는 것은 생명을 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논리이다. 강간죄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는 i)약혼한 처녀인 경우는 기대되어졌던 행복한 결혼과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게되고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되면 더욱 복잡하게 된다. ii)오늘날에도 미혼모의 낙태, 기형아 출산, 고아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iii)약혼한 총각에게도 심적, 현실적 피해가 막대한 것이다.

#### 7) 그녀가 죄가 없는 이유

야외에서 강간당한 여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① 고립된 환경에서 강요된 간음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태에서 처녀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 형벌도 내리지 말라고 하였다. 즉 구조의 기능이 없는 고립된 환경에서 필사적으로 항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철저한 피해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간음에 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치 않고 벌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처녀가 강제로 성적 폭행을 당했을 때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② 강간은 여성의 단순한 성적유린일 뿐 아니라 그 의지, 감정, 자존심 등을 동시에 유린하는 것이어서 인격에 깊은 상처를 받게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강간은 육체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정신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여성에게 보상해야 할지언정 처벌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③ 결과적으로 강간은 남자와 여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남자는 가해자라고 하여 사형에 처하고 여자는 피해자라고 하여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논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녀를 강제로 능욕한 남자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수치와 공포, 또는 분노속에서 성을 탈취당한 여자의 상처를 위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해도 그녀를 강간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것이 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 3.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의 통간

신명기 22장 28-30절에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에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한 규례이다. 이 경우 남자는 은 오십세겔을 그 아비에게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1) 의의

통간이란 남녀가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은폐되기 쉬우므로 통간중에 발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처녀가 약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본문 해당 사항인가에 대한 결정적 요건이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것으로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적교섭을 가진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며 불륜이지만 본문은 이들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유도함으로써 정당한 부부로 인정하여 구제하자는 데 뜻이 있다.

## 2) 목적

본문(조)에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의 통간은 결혼의 약속이나 절차없이 행해진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 이후 있을 수 있는 남자의 배신의 위험을 제거하고 결혼으로 유도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성교섭을 허용하신 일이 없고, 설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결혼예식 절차를 이행하기전의 혼전 성교섭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정당한 성은 애정과 자녀 생산과 합법적 결혼절차라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성, 즉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계시를 맡은 거룩한 임무 때문이다. 그들이 맡은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 민족으로서의 존재와 임무의 수행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의 순수성을 견지하여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민족적 혈통과 도덕을 유지 보전하는데 있다.

## 3) 아비에 대한 보상금

율법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의 간통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제재를 규정하고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음행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귀결이 되면 다른 사람이나 가문에 대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은 이같은 경우에 다른 성범죄처럼 형벌을 과하지 않고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빙폐를 지불함으로써 합법적인 결혼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의 빙폐금액은 50세겔<sup>67)</sup>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빙폐는 남자가 처녀를 범한데 대한 일종의 속죄금이나 보상금적 성격을 갖기도 하면서 정식으로 합법적 결혼을 신청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그 처녀의 아비가 딸을 그 남자에게 출가시키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빙폐만 받고 결혼은 시키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sup>68)</sup> 그러므로 이 빙폐는

67)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임금에 해당하는데 50세겔은 결국 20일간의 임금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일당을 5만원으로 보면 1000만원에 해당된다.

68)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결혼으로 성사될 때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지만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그 처녀에게 주는 것이 된다. 이같은 제도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받기 위해 십자가에 피흘리신 보혈에 대한 예표로 볼 것이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속에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목숨바쳐 피로서 하나님께 빚패를 지불하시어 우리를 신부로 맞아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황송하게도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있게 된 것이다.

#### 4)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임무

①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간음한 남자는 50세절을 처녀의 집에 지불하고 처녀를 아내로 삼도록 규정했을 뿐 다른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합법적인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시집보내지 않게되면 간음한 남자는 빚패(위자료적 성격)만 지불할 뿐 결혼의 의무는 없고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된다. 남자는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세겜도 디나를 강간한 후 그녀의 아버와 남형제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다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빚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sup>69)</sup>고 했다.

②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삼은 경우는 평생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의 정신이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람과 동시에 율법의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도도 있다. 남자는 아내가 다른 부정을 범하지 않는한 평생 정당한 아내로 그녀를

것이요 만일 그 아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빚패하는 일레로 돈을 낼지니라(출22:16-17)

69) 세겜도 디나의 아버와 남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창34:11-12)

대우해야 한다.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평생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sup>70)</sup>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 그에게서 은 일백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남자의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였다. 율법은 이같이 여자의 정절을 보호하고 있다.

③ 율법의 기능: 율법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고도 남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게 되면 그 사회의 성질서는 극히 문란해 질 수밖에 없고 도덕도 폐퇴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이같은 결과가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강한 제재의 방침을 밝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 있다.

#### 4. 기타 간음죄에 대한 규례

##### 1) 아버지의 후실을 취하는 경우

아버지의 후실을 간음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들어내는 것이 된다. 즉 계모와 구합하는자 인데<sup>71)</sup> 이는 저주를 받을 일이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같은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어느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가

계모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로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스겔 22:10에는 “너희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월경중인 부정한 여인과 구합하는자도 있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들어낸 자는 어미의 하체를 범한자와 같은데 이방 사람들 중에는 이런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진로를 이미 받았다. 이와같이 계모와 동침하는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

70)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신22:19)

71)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27:20)

하는 것으로 들다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인데” 이같은 가증스러운 풍속은 전혀 쫓지 못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 2) 짐승과 교합하는 자

짐승과 성적교섭을 갖는 수간은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었던 변태적 성행위였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짐승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인간 아담의 성적대상을 위해 여자(하와)를 창조하셨다. 수간은 고대 유목인들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의식에 의해 자행된 기록이 있다. 고대 애굽여인들은 숫염소와 교합하는 종교의식을 치렀고 가나안 족속들도 이런 의식을 가졌다. 이방 세계에서는 수간을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기도 했는데 히타이트족속의 법전에 의하면 인간이 소, 양, 돼지나 개와 교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 사형에 처하였으나 말이나 노새와의 교합은 합법화하고 있다.<sup>72)</sup>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은 신들과 동물과의 교합이야기가 많다. 정신의학에서는 수간을 성격이상자의 성도착적 행위로 이해하며 남자는 주로 양, 돼지, 개, 송아지 등을 상대로, 여자는 주로 개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수간은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즉 성적 결합이란 일체가 됨을 뜻하는데 수간은 짐승과 일체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을 쾌락만을 목적으로 삼게되면 그것은 인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문란케 하는 죄악이 되는 것이므로 사형에 처하였던 것이다.<sup>73)</sup>

## 3) 자매와 구합하는 자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딸, 즉 친누이나 어머니의 딸, 즉 이복누이와 성적교섭을 저주받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과의 동격 관계이

72) 트리니티 말씀대사전, (5) **신명기** 목양서원, p.605.

73)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나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20:15-16)

기 때문이다. 즉 한 혈육, 한 생명끼리의 성적교섭은 자신과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욕정에 의한 성질서 문란으로 가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sup>74)</sup> 씨족이나 부족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근친결혼이 성행하여 권장되기도 했는데 그 결과 가정의 위계질서가 파괴하고 일부일처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율법이 근친상간을 금한 것은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는 이런 일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이방인과의 결혼도 엄격히 금하지만 근친상간이나 근친결혼도 금했다.<sup>75)</sup> 근친상간은 가정의 위계질서

74) 삼하13:20에 의하면 다윗의 장남 압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해 다윗가정이 파괴된 내 나는 살인을 불러 일으켰다.

75)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중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중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할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중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쫓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

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를 폐해 집단으로 만들어 극단적인 배타성을 갖게 함으로 다른 부족과의 협력이 어려워 증오와 투쟁을 일삼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근친혼은 유전병과 지진아의 출생률이 높다고도 한다.

#### 4) 장모와 규합하는 자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면 장모는 곧 남편의 어머니이다. 그 어머니를 범한다는 것은 패륜행위로 율법은 이를 저주받을 악행으로 규정하여 화형에 처하도록 했다.<sup>76)</sup> 이같은 패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과 성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저주되었다. 쾌락의 추구로 인한 파렴치적 행위가 인간을 황폐시킨 결과이다. 또한 아내의 격렬한 분노와 반발을 유발시킬 것으로 위계의 존엄과 질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즉 어머니와 딸, 아내와 남편의 윤리적 관계가 깨어져 가정윤리가 파괴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는 황적 동일위계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동일 연배끼리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고로 종적 위계인 장모와의 성적 교섭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패륜행위로 일부다처제 하에서도 종적 결혼관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 V. 결 론

성범죄는 인간의 본능에 입각한 것으로 법률의 개념이 이루어진 초창기부터 범죄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시대

---

회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레20:10-26)

76)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레20:14)

8조금법에도 정확한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여자의 정조를 귀하게 여겨 성범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성범죄는 장소적으로는 동양이나 서양, 시간적으로는 고대나 현대를 불문하고 그 양상이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현대에는 생활의 패턴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이 다방면에 걸쳐 발산할 수 있어 유희적 성격의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하겠지만 고대시대에는 사회구조나 생활의 방법이 단순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많지 않아 각가지 형태의 유희적 성격의 성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의 각가지 범죄상황을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시켜 소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은 당시 사회의 문화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규를 통해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고대중동의 유목민적 생활하에서는 정착적인 농업사회에서 보다 성범죄의 양상이 훨씬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법전적, 율법적인 성격의 기록으로 근대법과 같이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규정의 내용은 성문법적인 것이다. 신명기 등의 기록은 대략 BC1400년경에 되어졌으나 시대적인 배경은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확실한 법적 규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最古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면 성경의 율법은 시대적 배경이 함무라비법 이전, 즉 BC4000년 전의 최초의 인류 아담시대부터의 사회적 바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작성연대가 함무라비법 보다 4-500년 후에 된 것에 불과하다. 이 시대는 세계역사에 있어 초창기여서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역사가 시작될 단계일 뿐 아직 국가적 체제가 갖추어지기 이전이고, 동양에서도 중국의 하(夏) 나 은(殷) 시대라고는 하나 아직도 그 실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시기에 해당한다. 중동은 인류 문명이 최초로 발생되어 성장된 지역으로 선사에서 고대에 이르는 시기 즉, 인류 문명의 초기적 형태가 확립된 지



역이기도 하다. 성경은 이같은 배경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좁게는 선사-고대초기 중동의 생활의 모습과, 넓게는 국가 형성초기 인류들의 생활 현장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한 최고의 자료인 것이다. 성경의 내용들이 종교법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나 순종교적인 의례법적인 것과 시민 생활에 관계되는 시민법적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성경의 기록이 이후 세계 각 국의 입법이나 문명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서양문명의 2대 기둥이 기독교가 바탕이된 헤브라이즘과 알렉산드대왕에 의해 이루어진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사상으로서의 성경의 율법이 서양문명, 법제의 기초를 이룬 것은 사실이고 서양문명이 오늘날 세계문화를 선도한 것도 사실이라면 직접, 간접으로 동양을 비롯한 각 국이 기독교적 성경관의 영향을 받아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성범죄, 강간죄의 연혁, 성경적 간음죄, 제7계명, 성경적 가정윤리, 음행, 간통, 성경적 간통 유형

### 참고문헌

- 배종대, **형법각론(4판)**, 홍문각, 2001.  
이태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2.  
토마스 왓슨(이기양 역), **십계명해석**,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김일수,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1.  
트리니티 말씀대사전, (5) **신명기**, 목양서원, 1992.  
풀핏, 풀핏주석, **마태복음(中)**, 베넬성서간행사, 1985.  
김홍전, 십계명 강해, 성약, 1996.  
벤자민 필리(박희석),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성광문화사, 1991.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3.

<Abstract>

Biblical View of Sex Crimes

Lee, Tae Eun

Crime is a natural byproduct developed with a human history and committed out of an evil nature of humanbeing. The nature of humanbeing is an evil since the first man, Adam, was corrupted. Among others, the sex crime appeared from the corruption of humanbeing unlike murder or theft. While murder or theft is committed due to humanbeing's disposition, the sex crime is an indirect crime committed from an evil nature of humanbeing. The natural crime such as theft or robbery may be sympathized with in that they are committed for survival and even some of murders, depending on their motives, may be forgiven. However, sex crime is committed due to the entertaining and corrupting character of humanbeing, and in some sense, can be more characterized as an anti-civilization crime breaking social order.

A bible says that every sex crime should be punished with capital punishment as equal as a murder in the reason that it cannot be given any sympathy because of its entertainment-pursuing character.

This paper centers on analysing the sex crimes during the Deuteronomy of Bible, the origin of sex crime which does not show as big differences as those of these days.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ings:

First, the elements of sex crimes in the criminal code;

second, the precondition of sex crimes, marriage in the old days, biblical nature of adultery, appearances of an obscene ac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dultery in the bible and various regulations on adultery by examining the sex crimes in the Bible.

This paper is one of efforts to recognize bible as basis of contemporary civilization and system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lear understanding of sex crimes by comparing the initial sex crimes with contemporary and by identifying the foundation of sex crimes.